

# 좋은 열매는 좋은 씨 뿌려야

다. 용심의 중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마음을 쓰는데 튼튼한 기둥이 있다면 헐떡거리고 옆치러지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 안심이 중요하니 안심을 하려면 조심해야 하고 조심을 잘 하려면 관심을 잘하고 용심을 잘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어떤 순서에 의해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순서도 없고 앞뒤도 높낮이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지금 바로 이 순간에 그 네 가지의 마음이 함께 돌아가야 합니다. 과거생이 공금해 현생을 망칠 수 있겠습니까? 내생이 공금해 현생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도 미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현재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현재도 없는 겁니다. 현재는 어느새 과거가 되고 미래는 또 어느새 현재입니다. 어디에 과거가 있고 현재와 미래가 있겠습니까? 느끼는 순간 따지는 순간 이미 다 놓쳐버립니다.

있음과 없음은 초월한 자리에서 마주치는 현재가 진정한 현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하는 것, 현전일념(現前一念)이 돼야 합니다. 지금의 밝은 마음 지금의 기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수행이고 정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뭘 따지려고 하지 말고 안심하면 됩니다. 조심하면 됩니다. 바르게 관심하고 제대로 용심하면 됩니다. 한다는 마음조차 없이 말합니다. 뭘 한다는 것은 존재 한다 살아 있다는 것이니, 거기에는 상(相)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금강경>이 이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다 공한 것임을 가르친 것을 잘 알고 깨달아 줍니다. 바로 그렇게, 현생에 안심하고 조심하고 관심하고 용심하는 도리를 알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다’는 말이 있지요? 무심해 보이고 초탈해 보이는 사람, 그러면서도 늘 자비롭고 이해심이 넓은 사람을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안심이 되는 사람이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심하기 위해 조심하고 관심과 용심을 잘 하는 사람이라면 완전한 부처는 아니더라도 가운데 토막은 될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현생에 가운데 토막이 되면 다음 생애는 은뎀이 부처를 이루지 않을까요?

지금 나의 행동은 반드시 결과를 가져 옵니다. 그것이 인과입니다. 누구도 어떤 행위로 벗어날 수 없는 진리가 인과법입니다. ‘불락인과(不落因果)와 불매인과(不昧因果)’의 이야기로 유명한 화두, 황백선사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인과는 누구도 벗어날 수 없으니 지금의 마음이 곧 인이고 과입니다. 좋은 열매를 얻으려면 좋은 씨앗을 뿌려야 하는 겁니다.

해인사 강원 시절이었습니다. 어느 날 대구에 나갈 일이 생겼습니다. 그 시절엔 해인사에서 대



구가 상당히 먼 길이었고 별 일없이 다닐 수도 없는 길이었지요. 그래서 누가 나간다면 확용품이나 필요한 물건을 사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나도 여러 사람의 부탁을 받고 돈을 챙겨서 대구로 가는 버스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장 가다보니 어디에서 아주머니 한 분이 타시는데 한 자락 가득 미꾸라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바글바글 거품을 내는 미꾸라지들의 운명은 뻔했습니다. 대구 인근의 화원장에서 팔리던 반드시 국술로 들어갈 것이었습니다.

나는 주머니 속의 돈을 생각했습니다. 강원 의 여러 스님들이 물건을 사다달라며 주신 돈이지만, 그런 것을 따지기에 앞서 자꾸만 미꾸라지들의 운명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결국 옆의 신도님을 시켜 값을 알아보고 기사님에게 위천 다리 중간에 차를 세우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높은 다리 난간에서 한 통이의 미꾸라지들

을 방생했습니다. 아마 몇 마리는 다이빙이 서툴러 죽었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 생명들을 살렸다는 기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즐거웠으니 강원엔 돌아와 들은 핀잔과 원성은 꽃잎을 스치는 봄바람이었지요. 그 후에 여러 차례 방생법회를 다녔지만, 위천 다리 복판에서 혼자 감행했던 방생보다 기쁜 방생은 없었습니다. 모든 업은 마음에 새겨집니다.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의 마음에 악업을 새깁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은 선업을 새기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에 어떤 인을 새겨 어떤 과를 예약하는지 스스로 관심하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활이 무리요면 번뇌 망상이 쳐들어 올 틈이 없는 삶, 안심하고 사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글·사진=임연태(세인 본지논설위원)



##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 95. 미안마 밍군 스님

우리에게는 일찍부터 ‘버마’로 알려진 ‘미안마’. 지리적으로 인도차이나 반도 서북부에 위치한 미안마는 한반도의 3배가 넘는 큰 나라로 134개의 소수민족이 살고 있고, 전국에 400만 개가 넘는 불탑이 세워져 있어 ‘불탑의 나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불교국가 미안마에서 빼놓을 수 없는 스님 중 한분이 바로 밍군 스님이다.

밍군 스님은 1911년 미안마의 타이뷰와에서 태어나 8세에 민잔 민자웅 승원의 우 소비타 스님에게 입문해 불교와 인연을 맺었다. 1930년에 구족계를 받고 1937년 담마다나 승원의 책임자가 됐다.

스님은 36세 때 가장 길고도 어려운 시험으

집에서 각각 율과 법을 설했던 우팔리 존자와 아난다 존자의 역할까지 한 번에 수행했다. 스님은 당시 1만6000쪽의 경전을 암송해 당시 인류 역사상 이러한 암송력을 가진 자는 일찍이 없었다는 평가와 함께 1985년 기네스 북에도 등재됐다.

스님은 그 후 1980년 국가 승단인 ‘마하나야카 위원회’ 총서기 직에 선출됐고 티피타카니카 야 협회(삼장 및 경장 협회)를 창



밍군 스님을 기리는 동상과 스님의 일대기. 저서를 볼 수 있는 세계 최대 벽돌탑 만달레이 밍군 파고다.

교수가 번역한 <마하부다왕사>는 우리나라에서 <대불전경>으로 출간됐다.

미안마 정부는 이러한 스님에게 ‘아가마하판다타(최승의 대현자)’ ‘아비다자 마하랏타구루(수승한 깃발이자 국가의 위대한 존장)’라는 칭호를 수여했다.

또 밍군 스님이 당시 외운 경전은 현재 만달레이에 석경으로 조성돼 있는데 792개의 백색 대리석에 6차 결집 당시 독송된 경·론들이 새겨져 공원을 형성하고 있다. 미안마 사람들은 이를

다 읽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한 번 보고 만지기만 하면 죽은 뒤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믿어 이곳을 순례한다고 한다. 세계 최대 벽돌탑인 만달레이 밍군 파고다에도 이러한 스님을 기리기 위해 커다란 스님의 동상이 세워져 있으며

### 미안마 불교 중흥... 1만6000쪽 경전 암송 기네스북 등재

로 명성이 높았던 ‘티피타카다라(三藏護持) 시험’을 통과해 삼장과 주석서들을 꿰뚫었음을 인정 받았다. 삼장법사는 경·율·론의 삼장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모두 암송하는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호칭이다. 미안마에는 총 8명의 삼장법사가 있는데 밍군 스님 이후 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없다고 한다.

부처님께서 입적하신 뒤 칠엽 굴에서 있었던 1차 결집, 아소카 왕 당시의 2차 결집 등 1, 2, 3차 결집 결집은 인도에서 이뤄졌다. 이후 4차 결집 결집은 스리랑카에서 이뤄졌으며 5, 6차 결집 결집은 미안마에서 이뤄졌는데 밍군 스님은 양군에서 1952년 이뤄진 6차 결집 결집 당시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

밍군 스님은 제6차 결집 결집에서 위사자카(삼장의 모든 부분)에 관한 질문에 답하는 ‘응답자’로서의 역할을 해내 1차 결집 결

립했으며 각종 불교대학을 설립했다. 또 스님은 ‘비구들을 위한 지위타다나 사사나(생명을 베푸는 불교) 특별 병원’을 설립하는 등 미안마 불교의 중흥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또 스님은 부처님 일대기에 관한 연구인 <마하부다왕사>를 남겼는데 경과 율을 참조해 살피는데 많은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현재 영어로 번역돼 전 세계에서 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동국대 철학박사로 초기불교 및 대승 경전을 전공하고 오랫동안 팔리어 연구에 전착해 온 최봉수 교수가 밍군 스님의 <마하부다왕사>를 10여 년의 노력 끝에 우리말로 완역했다. 현재 밍군 스님의 제자들에게 의해 영역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마하부다왕사>를 최고

수하는 그 영어 번역본을 기본 텍스트로 삼아 마하부다왕사의 내용을 우리의 말로 풀어냈다. 최

원형으로 돌아가며 스님의 일대기와 사진 저서들이 전시됐다.

밍군 스님이 결집 때의 일화다. 누군가 밍군 스님에게 ‘깨달음’에 대해 물었다고 한다. 그러자 스님은 빙긋이 웃으며 “적게 먹고, 욕심 부리지 않으며, 모든 생명을 나처럼 아끼는 것, 이것이 깨달음 아니겠습니까?”라고 말했다.

그러자 질문한 사람이 “에이, 스님.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라고 답하자 스님은 다시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이 많이 먹은 노인도 실천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겠습니까?”고 답했다고 한다.

돌아가실 때까지 모든 이들에게 모범이 된 밍군 스님. 부처님 말씀은 오롯이 전하고 그 당시의 정신으로 살고자 한 스님의 향취는 아직까지도 수많은 미안마 국민들과 불자들의 추앙을 받고 있다.



폐결핵으로 한쪽폐가 없어지고 간경화, 위궤양, 대장염으로 복수가 차서 피를 토하고 쓰러져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이 병원에서 마저 쫓겨나 죽음을 기다리다 무심코 「발치기」운동으로 살아난후 세계최초로 창안한 활인건강법!

"이운동으로 죽을 병고친사람, 몸이 더욱더 건강해진 사람, 정력이 변강쇠처럼 된 사람 무수히 많아, 누구든지 하기만 하면 제병을 제거고치는데 안하니까 문제여, 이운동은 무병장수할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며,, (본문에서)

# 평생 척추, 골반, 관절 걱정없다

퇴행성관절, 안짱다리, 고관절, 디스크, 좌골신경통, 오십견, 견비통, 목뻣뻣, 수족냉증, 두통, 갑상선질환, 불면증, 상기증

젓먹이 아이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본능적인「기지개운동」을 통해 건강하게 무럭무럭자란다.(생명의 신비!) 강력한 생체전기가 전신을 감싸고 입안에서는 단침이 뭉클뭉클, 내분비계통을 활성화 시켜서 만성적인 성인병을 치유하는 기지개운동법 수록

- 골반** 골반변형이 만병의 원인! (불인, 생리통, 수족냉증, 무릎관절통) 가장 빠른 골반교정운동, 스스로하는 평생골반관리법, 편안하게 누워서 골반과 전신의 균형을 잡는법 수록!
- 척추** 뇌에서 내려오는 30,000개의 신경다발이 추간공을 흐르고 있다. 척추는 오장육부의 뿌리, 비틀어진 척추를 스스로 바로잡아 질병의 뿌리를 뽑는다.
- 복부** 배살과 전장, 복부비만을 아주쉽게 해결한다. 물혹, 자궁근종, 위염, 위궤양, 변비등의 원흉인 복부적취를 가장쉽고 빠르게 해결하는 온열배장운동법!
- 근육** 근육의 긴장, 수축, 노화로 인해 신경, 혈관, 림프관의 압박으로 신경통, 근육통등 각종 통증에 시달리게된다. 근육풀이 건강법으로 통증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통증치유법수록!

**국제정골요법협회**  
소백산수련원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구구초등학교자리>  
☎ 도서구입내 : 이 책은 서점에는 없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책신청 : 054)637-9810**  
☎ 농협계좌: 751017-52-024285 김순옥

빛 살림  
**정골요법**  
그림을 보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창조, 값10,000원

**-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 (1박 2일) -**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에서는 놀라운 건강법이 공개됩니다. 각종 통증과 심혈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에게 획기적인 건강법입니다. 즉석에서 효력을 확인할 수 있고 눈으로 보여드립니다.  
책 구입시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